

교회목표

신명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성서공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모든 성도를 위한
복음의 잔치가
열립니다!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

| 주제 |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고후 4:3~4)

| 일시 | 2011년 6월 24일(금) 저녁 7시

| 장소 | 충현교회 본당 |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모든 성도를 위한 복음의 잔치인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이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지난 1차 청지기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의 아들이 교회 안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때,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고후 4:3~4)의 말씀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강력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빛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엡 5:8).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시되 꼭 가족과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과 수종드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한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벧전 5:9).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막는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훈련 당일, 많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급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둘러 교회로 오시고,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청지기훈련 좌석 및 안내는 본지 7면

*다음 주(6월 26일) 찬양예배 시, 2011년 제3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김벨리움)

성명의 말씀(금요찬양집외)

새 언약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언약은 계속 갱신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다(렐 11:10, 13). 그래서 언약을 그저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였다.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을 보았다(렐 31:31~34). 이에 대한 내용은 신약에서 두 번씩이나 인용되었다(히 8:10~13, 10:16~18). 통상적으로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부를 때 의미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표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에스겔도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새 언약에 관한 방대한 자료는 앞에서 살펴본 역사적인 언약들과 똑같이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말씀을 찾아가며 살펴나갈 때 나타나게 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앞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래의 소망을 주는 새 언약의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이다.

새 언약을 처음 대할 때는 그 범위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언약으로만 보인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모두 이스라엘이 회복될 희망을 보여준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반대로 위로를 주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와 같다(렐 31:27~28, 1:10). 따라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새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에스겔의 비전은 에스겔 34장, 36장, 37장에 잘 나타나고 있다. 새 언약의 범위는 묘사된 그대로 현저하게 이스라엘 국가에만 적용된다. 하나

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정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다(렐 34:11, 15, 2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열방들은 하나님에 참으로 누굴이신가를 보고, 듣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주적인 요소가 있다. 이는 언약 자체 안에 함축적 있지는 않으나 이사야는 처음부터 열방을 포함한 우주적인 요소를 언약 안에 함께 포함시켰다(사 42:5~6, 19, 49:6, 8). 이 말씀은 바울이 후에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로 결정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행 13:47).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약속하시는 내용을 전한다(사 54:9~10). 노아의 언약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우주적인 면이 이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더 확장되어 이사야의 전도적인 결론으로 나타난다(사 55:3~5). 이것이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과 연결된 고리이다.

이사야 40장~5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즉 만민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 만국의 빛이 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약이다. 시내산의 언약은 거의 모든 말씀 안에서 드러난다. 인간의 마음속에 쓰여지는 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예레미야의 말씀, 죄가 맑게 씻겨지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에스겔, 여러 모양의 정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새로운 출애굽의 기도와 열방을 향한 공평과 정의를 전하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시내산의 규정과 율법을 들을 수 있다.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세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새 언약 가운데서 드러난다. 다윗 왕이 이루어야 하는 '의와 공평'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의로운 가지'에서 드러난다(렐 33:15). 에스겔의 참 목자는 하나님의 통합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백성을 다스리는 인도자와 명령자를 증거한다. 아멘.

WHAT IS GOD'S DESIRE?

⁽¹⁾First of all, then, I urge that entreaties and prayers, petitions and thanksgivings, be made on behalf of all men, ⁽²⁾for kings and all who are in authority, so that we may lead a tranquil and quiet life in all godliness and dignity. ⁽³⁾This is good and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r, ⁽⁴⁾who desire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⁵⁾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also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1~5)

In today's Bible passage, Paul instructs Timothy to pray for all men, "First of all, then, I urge that entreaties and prayers, petitions and thanksgivings, be made on behalf of all men"(1 Tim. 2:1). There is no one whom God's grace cannot reach. Having just described how God saved him, Paul highlights his sinfulness,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1 Tim. 1:15). Everyone needs to listen to Jesus and receive Him as their Savior. Paul pointed out the need for Timothy to pray "for kings and all who are in authority, so that we may lead a tranquil and quiet life in all godliness and dignity"(1 Tim. 2:2). God has ordained political powers, "Every person is to be in subjection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and those which exist are established by God"(Rom. 13:1). God can use anyone for our benefit, like Pharaoh in the deliverance of Israel from Egypt. Praying for "all men" is something that doesn't come naturally, but is our Christian responsibility due to God's desire. What is God's desire?

God's desire is for everyone to be saved. Praying for everyone is "good and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r, who desire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1 Tim. 2:3~4). God is the only Savior,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also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1 Tim. 2:5). Some people are tempted to look to earthly rulers for salvation instead of God. Indeed, in today's world there are a lot of leaders who act like saviors, but God is the only one who can forgive sin. Scripture is very clear in teaching us that no one besides God can truly save us. God purposefully sent His only Son, Jesus Christ, to save mankin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Jesus' primary function for coming to this earth the first time was to save mankind, "For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judge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Jn. 3:17). God's ability to save is not limited. We must never reduce God to a human savior who either is incapable or undesirable of saving mankind. Jesus invites everyone to come to Him,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Mt. 11:28). Jesus will not turn away anyone who comes to Him for salvation,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the one who comes to Me I will certainly not cast out"(Jn. 6:37). When you're depressed or deeply grieved by something, go to Jesus. He will never let you down. The problem is that you don't go, you ignore Him, and He's the only one who can save you.

God's salvation is available to all, but not all will accept it. In all of creation, only man is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Ever since Adam and Eve chose to disobey God, in the Garden of Eden, man has continued to sin. The consequence of their disobedience was that now all human beings are born into sin,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3). God's great love provided a way to restore a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God. His plan of salvation in Christ Jesus is eternal. It is for everyone, but not everyone receives it. Jesus said, "But you do not believe because you are not of My sheep.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and I give eternal life to them, and they will never perish; and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Jn. 10:26~28). In His forbearance, God endures and waits for His people to come to Him, "The Lord is not slow about His promise, as some count slowness, but is patient toward you, not wishing for any to perish but for all to come to repentance"(2 Pet. 3:9). God chooses His people,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Jn. 15:16). Romans 8:29~30 say,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com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so that He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and the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and these whom He called, He also justified; and the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Your faith in Jesus Christ is not of your doing, but God's. Some people cannot receive it, and we need to appreciate that.

My dear friends, Paul charged Timothy to pray for all people. Since the Holy Spirit's indwelling of all believers on Pentecost, we as Christians now proclaim Jesus all over the world. God wants to save all, and we should pray for everyone, but we cannot expect one hundred percent of our listeners to accept. Some people accept Jesus and some people do not, but still God desires for all to be saved. Amen.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1~5)



김성관 목사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 2:1).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술한 뒤에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강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2). 하나님이 경건들을 세우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바로를 쓰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아도,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딤후 2:3~4)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어떤 신자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 대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에는 구세주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주된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하거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 구세주로 하나님을 격하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불러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은 구원받으러 당신께로 오는 그 누구도 돌보아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

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우물거거나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낙담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가능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영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그분의 구원계획은 영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지만, 모두가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6~28).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후 3:9).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로마서 8:29~30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복하시라 하고 의복한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책무를 맡겼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신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100% 영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

심자가 복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누가복음 10:38-42)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 되고 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맡기셨고, 이들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주님의 감사기도에 이어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셨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 된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우리 모두는 이 속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형유를 주께 좃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요 11:1-2). 예수님은 진히 이 가정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어 들었다(눅 10:38).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가신 이유는 분명했다.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함이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마르다의 인도를 받아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 이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푹 빠져 있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더니"(눅 10:39).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길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말씀 앞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로 충만했다. 이와 같이 말씀에만 집중할 때 하

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눈물이 있다. 회당장 아이로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눅 8:41).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다. 마리아는 비산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다(요 12:3).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님께 의해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눅 8:35).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덮어간다.

●마르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 사람은 마르다였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몹시 바빴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일도 도와주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한다.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눅 10:40).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항상 불평함이 있다. 지금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설교마저 중단시키며 주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한다. 이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려진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 10:41~42).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와 같은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눅 22:31)를 부르셨으며, 사울(행 9:4)을 부르시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격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신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잃어버린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충주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말씀을 잃어 불평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계신다.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봉사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마 28:19~20; 행 1:8).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83

유다의 입맞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마태)

남은 가롯 유다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왜 '친구'라고 호칭하셨을까?

마태복음을 보면, 친구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1~16)를 보면, 포도원에 있어 일한 품꾼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향해 주인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 나리온의 약수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다(마 20:13). 또한, 혼인 잔치 비유(마 22:1~14)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 주인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질책하였다(마 22:12). 구약성경에도 친구라는 단어를 쓸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삼하 15:37). 이때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온 후세에게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삼하 16:17)라고 조롱하며 질문하였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친구'라는 단어를 긍정적

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 대신에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중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중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5).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였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친구를 사랑하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며 기회를 주셨는데, 친구들의 모습은 장만되었다. 예수님을 고민하여 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그 친구였기 때문이다(마 26:38; 시 42:6). 이들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민 16장)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다.

친구는 분명 긍정적인 단어인데, 우리의 죄 된 본성이 그것을 부정적인 단어로 바꾸어 버린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내뱉게 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줄 '참비'로만 생각하고 있다(마 26:25).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남긴 일을 뒤늦게 후회하였지만(마 27:3~4).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 회개하였다고 애도하지, 결국 자살하였다(마 27:5). 영원히 죽는 죄인들인 우리를 '중'이 아닌 '친구'로 대하시려는 은총의 기쁨이 더 이상 놓치지 말자(요 15:15; 마 11:28).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자. "어린 양에게 무릎을 꿇게 하소서", 아멘.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

매년 가는 선교라서 늘 하는 듯이 훈련에 임했는데 훈련 시작부터 집 안일과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시간을 내기가 많이 어려웠다. 또한 전도까지도 시험에 들게 했다. 외국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면서도 정작 친정 아버지께는 전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그렇게도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아버지께서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다. 웬 은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렸다. 나만이 알고 품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께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였다.

홍종호(집사, 24교구)

십자가 앞에 남는 자

베트남 언어는 너무 어려웠다. 어찌나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를 빨리 보내기 위함인 것만 같아 기쁜 마음이 아니라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 선교 활동이나 여러 일들을 열심히 하였다. 사역 평가회 때 '나조차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였다. 이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편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였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 제일 감사하다. 이러한 체험, 이 뜨거운 마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말씀 붙들면서 십자가 앞에 남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인정(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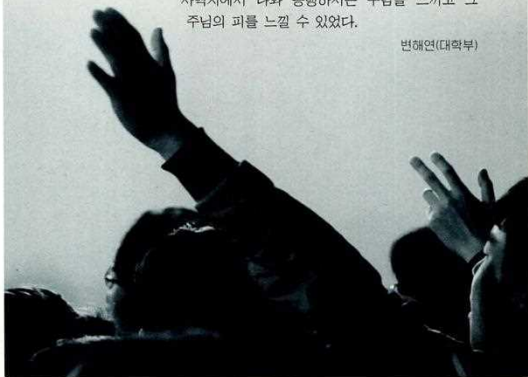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게 된 선교였다. 영혼과 영적 싸움을 하며 그 영혼의 마음 문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던 것은 이번 선교가 처음이었다. 베트남을 간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은 힘을 거라는 말과 꺾박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들은 뒤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여차피 전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언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첫째 날, 둘째 날 사역은 나에게 너무 힘들었다. 나의 이런 어려움과 한심한 생각은 둘째 날 저녁 평가회에서 깨졌다. 난 말로만 베트남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복음을 말하자 바로 모르겠다며 날 외면했던 영혼들에게 난 주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베트남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였다. 주님께 너무 죄송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또한 그들을 위해 앞에서 기도하시는 걸 느꼈다.

사역지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의 피를 느낄 수 있었다.

변해연(대학부)



우리가 선교할 곳은 넓구나

충동부 2팀

어느 마을에서는 할머니 여러 분을 뵈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맺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지역에서는 사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조하진)

처음 전도할 때는 쑥스럽고 두려워서 그냥 선생님만 따라다녔는데 날이 갈수록 더 다가가기 쉬워졌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 갈 마을도 없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지만 계속 다른 마을에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할 곳은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국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보아 신기했고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처음이라 신기했다. 처음 사역을 할 때는 힘이 들었고 더워도 많이 먹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신이 나고 저절로 힘이 솟아났다. 사역 5일째부터는 한국에 가기가 싫었다. (김재혁)

전도를 하는데 환경이 다르다 보니 냄새가 나고 말이 잘 안 통했다. 그래도 애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

(오재희)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이란 찬송을 부르니 어린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따라 불러서 고맙고 귀여웠다. 특히 울동을 따라 갈 때에는 왜 아나님이 친국에는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갔다. 정말 순수했기 때문이다. (이은영)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3일(월) ~ 6월 21일(화)	10교구 1팀	함희자
6월 14일(화) ~ 6월 22일(수)	23교구 1팀	박노익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7일(화) ~ 6월 15일(수)	24교구 2팀	전정금
6월 10일(금) ~ 6월 18일(토)	3교구 1팀	박창서





“아자”라는 탄성이 나왔다

집사회 하기수련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기대보다는 하나의 교회 행사 참여였다. 수련회 중 맑은 일도 있던 터라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개회예배부터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은 나의 심령에 깊이 다가왔다. 말씀이 나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며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 때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메시지에 내 속에선 “아자”라는 탄성이 나왔다.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어느새 잊어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급세 심각해졌다. 창조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다시 내 삶을 점검해야 했다. 이내 정리가 되었다. 복사님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 말씀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이전에도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은 항상 있어왔다. 내가 연약했던 그때 그때마다.

예배가 끝나고 지회별로 방을 배정받아 이동했다. 담요 하나씩 배분받아 용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며 왠지 흐뭇한 미소가 나왔다.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도, 밖에선 꽤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집사님도 마치 피난처 같은 방에서는 똑같이 담요 한 장씩 받아서 다다다닥 붙어서 자야 했다. 불편한 점이 조금 있어도 내색 않으며 오히려 어린 아이 같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함께 했다. 이 모습만으로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특강 시간. ‘구약 맥 잡기’ 강의 때는 ‘구약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는구나’ 하면서 금방 시간이 흘러갔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구약 각 권마다 제시된 내용을 체크해 가며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이사가 등 몇 군데에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구약 전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제시하고 있어서 새삼 놀라웠다.

이번 수련회는 매순서마다 영적 즐거움이 있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즐거움이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기묘한 악임에 틀림없는 것임을 느꼈다. 수련회 순서마다 불렀던 주제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 430장)은 영적 즐거움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좁지만 은혜롭고, 고난이 있지만 즐거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너무나 걸맞은 행진곡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는 그 좁은 길은 주와 같이 걸어야만 가능하며, 다른 새로운 길이 아닌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임을 찬송을 부르면서 깨닫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령이 일한 후의 초대교회 집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구제와 교회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집사로 택함을 받았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무 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면 순종하여 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하기도 했던 그 집사들. 이제 나는 어떤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가? 나와 우리 총현교회의 모든 집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초대교회 집사들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좁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걸어가는 주 안에서 참 집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다.

김영조(안수집사, 14교구)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번 중등부 새친구 초청잔치는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와 처음으로 하는 새친구 초청잔치였기 때문이다. 많은 새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함께 힘이 정말 놀랐고 신기했다. 중등부에서는 새 친구들을 환영하기 위해 다양하게 준비를 하였는데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순서가 있었다.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심어의 목소리가 서로 어울려 참 아름답고 감사한 찬양이었다. 한 아버지가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하는 내용의 짧은 동영상을 보며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도 초청잔치 때 새 친구들이 많이 와서 총현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나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노력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김보희(중등부)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

‘Rebuild I’ 집회를 준비하며 영혼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대학부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드렸다. ‘Rebuild I’ 집회는 주님 안에서 대학부가 재건되고,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대학부 총동원 전도집회이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놓고 많이 기도했다. 집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동안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분주한 마음이 들면, 막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에 참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집회 후, 성극 소그룹인 두드림의 특별순서가 있었다. 성극의 등장인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회의하는 마귀들이었다. 나는 마귀 무리에서 가장 실적이 적은 막내 마귀 역할을 맡았다. 회의를 거쳐 이런 저런 방법이 나온 끝에, 마지막으로 나온 변칙이는 아이디어는 ‘내일 하자’였다. 성도들이 찬양집회도, 말씀도, 기도 모임도 다하도록 내버려두되, 오늘 말고 내일 하자는 마음이 들도록 계몽을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지켜야 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내일’인 것을 집회와 성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필연적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진정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불드시고 나의 신앙을 불드시를 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한솔(대학부)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 준비 ②

주제는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고후 4:3~4)이다!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의 말씀의 주제는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고후 4:3~4)이다. 주제 속에 말씀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다. 때문에 주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은 직분을 받은 자에 대한 권면(고후 4:1~6)으로 시작하여, 질그릇과 보배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연약성을 설명(고후 4:7~15)하고, 믿음의 삶에는 환난이 있겠지만 이에 비할 수 없는 영광(고후 4:16~18)이 있다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번 청지기훈련의 주제 말씀이 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여느 때와 달리 이번 청지기훈련은 오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특별함이 있었다. 이제 막 주님을 알기 시작하여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새신자 두 사람과 처음 맞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전도와 기도와 보살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함께 하셔야 했기에 간절히 마음을 사모하며 나아갔다. 어떤 특정한 이를 위해서가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는 영광의 극치임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죄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이 결코 내 수고와 인내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내 안의 죄성을 파괴해 주시고 영원한 죽을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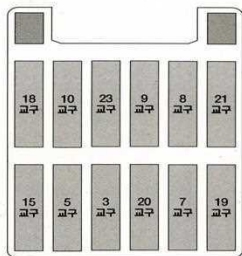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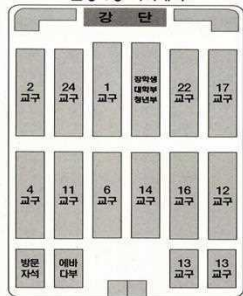
죄인회(집사, 4교구)

*지난 2월 25일에 있었던 제1차 청지기훈련 소감문이다.

청지기훈련 좌석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안내

- 이번 주 화·금요일 기도원 집회 수요일 충현전도대원훈련·구역장 양성훈련 및 금요구역예배는 실시한다.
- 탁아부실(선교관 1층, 작은 방 0~3세, 큰 방 4~7세)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선교관 1층, 3세 이하) 및 배대니울(본당 1층, 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량안내부의 모든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량안내부의 지사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 하십시오.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습니다.



김성관 목사님 귀하

중현교회 부임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 생각해보면 목사님의 오심은 진정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며 교회 기도제목에 이루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즈음 당회장 청빙을 위한 기도제목이 "강단을 잘 지키며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 보내주시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진정 목사님과 만남은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것 또한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에 많은 영적 변화의 역사를 이루심도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복음의 여정이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예수님 때문에 사모님과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 6월 4일 김은호 장로 올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399	임시우	영아부	9	출생	2422	이현정	양육부	11	최희순
2400	정은성	영아부	20	출생	2423	정지영	양육부	7	오달녀
2401	신상민	영아부	3	출생	2424	이수진	양육부	11	김영모
2402	김춘식		18	선명환	2425	조재우	대학부	5	김옥근
2403	리케스디스	외선부	25	허은숙	2426	허대기	양육부	18	김명순
2404	아르준	외선부	25	조윤숙	2427	내혜진	양육부	1	김신진
2405	권산	외선부	25	김찬경	2428	박용민	양육부	11	주낙진
2406	함영자	양육부	20	김대중	2429	노정현	양육부	11	김숙
2407	김태형	양육부	21	김대중	2430	박기영	대학부	21	오다현
2408	박옥란	양육부	15	박연옥	2431	강다희	고등부	24	손다은
2409	최범규	대학부	11	김요남	2432	김대민	중등부	9	김길성
2410	오보나	양육부	4	이현정	2433	정대경	양육부	17	김종식
2411	홍세운	양육부	21	박영근	2434	양한정	양육부	22	김리미
2412	최나과	양육부	10	한기덕	2435	김민하	양육부	12	윤해정
2413	김재현	초등1부	20	정재현	2436	전혜원		8	남정숙
2414	아루니	외선부	25	박유정	2437	박영순	양육부	9	차봉순
2415	티카파카	외선부	25	김영연	2438	양정민	초등1부	13	김동철
2416	소시	외선부	25	이득해	2439	서선영	양육부	14	현영금
2417	케니	외선부	25	김영연	2440	김보현	양육부	14	김예자
2418	하리	외선부	25	유종석	2441	정은혜	양육부	15	최재성
2419	우상진	양육부	16	김세형	2442	한명희	양육부	14	김영아
2420	송은진		1	홍미화	2443	한진주	양육부	14	윤순규
2421	이정환	양육부	12	김형조					

